

협회 동정



〈주제발표〉



〈패널토의〉

동위원회 이용증진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4년간 발효되는 제2기 한중일 협력협정서의 서명식(사진)을 가졌다.

금번 제2기 한중일 협력협정서에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회 이용발전을 위한 3국간의 인력교류, 공동사업 및 정보교류 등 실천적인 협력사업의 내용을 담았으며, 한중일 협력회의는 각국이 순회하여 2년마다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Working Group 모임을 통하여 사전에 세부의견을 교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차기 한중일 협력회의는 2008년도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6차 세계동위원회대회 개최시에 병

행 개최키로 하고 이에 따른 예비 모임으로 2007년도에 중국에서 Working Group 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이번 협력회의 기간동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공동주제에 대하여 각국별로 각각 6편씩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통하여 각국의 실질적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회 기술의 발전방향과 상대국의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특별코너인 각국의 PET이용현황에 대한 패널토론도 함께 수행되어 협력회의의 취지를 살렸다.

그 밖에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일본국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회의 주요 이용시설인 Daiichi Radio-isotope Labs, Ltd., Riken Yokohama Institute, Rican RI Beam Factory 및 Japan Proton Accelerator Research Complex등 4개 시설을 방문하였다.

금번 한중일 협력회의는 우리나라의 방사성동위원회 이용증진 및 활성화의 위상 강화와 2008년도 세계동위원회대회 성공적 개최 역량을 마련해 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회원사의 국제협력 동기 확대를 더욱 돋독히 하는 결실을 맺은 회의였다.



〈Rican RI Beam Factory 방문〉

RI관련(일반면허, 감독면허, 특수면허) 면허자 보수교육실시

7월 21일(금) 협회 강의실에서 RI관련(일반면허, 감독면허, 특수면허) 면허자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면허자들의 방사선관련 기술 습득, 안전의식 고취 등 자질 함양을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총 85명(감독자면허 14명, 일반면허 53명, 특수면허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자력관계법령 및 방사선안전 관리규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정책실 김창범 실장)'과 '방사선안전관리 실무(성균관대학교 이상복)'를 동영상 및 시청각교육을 겸하여 실시하였다.

동 교육은 원자력법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하는 RI관련 면허자가 면허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보수교육 대상자는 2003년도에 동교육을 이수한 자나 면허를 취득한 자이다.

우리협회는 RI관련 면허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방사선안전관리실무와 관련된 전문과정을 마련 실시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 전문과정(3일)은 11월 22일(수)~24일(금) 제주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실시

7월 중 서울·경기 및 경상 지역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종사자 및 기존종사자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7월 4일(화) 부산대학교병원/63명(기준) ▶11일(화)~14일(금) 인제대학교/98명(기준), 46명(신규) ▶13일(목)~14일(금) 울산대학교/167명(기준), 177명(신규) ▶19일(수)~20일(목) 한양대학교/83명(기준), 99명(신규) ▶25일(화) 고려대

학교/182명(기준) ▶27일(목)~28일(금)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실시되었다.

우리협회는 전국에 분포돼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장거리 출장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정된 교육 외에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수강생(방사선작업종사자등)이 확보되면 추가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원자력기술 수출 방안을 위한 회의 개최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는 원자력협력과 주관으로 7월 7일(금)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원자력기술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원자력발전분야와 방사선기술(RT)이용분야 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과학기술부 양성광 원자력협력과장은 인사말에서 원자력 선진국가인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 의의와